

提 出 文

國土統一院長官 貴下

이 報告書를 『南北對話와 大學生善導上의 問題點』
의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8. 3

研究機關名 :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 金 仁 鴻

目 次

第一章 大学の 機能과 現實参与	3
第1節 序 論	5
第2節 大学の 理念과 社会的 機能	6
第3節 大学生의 現實参与	12
第二章 大学生의 統一安保觀分析	19
第1節 調查方法	21
1. 調查의 目的	39
2. 調查方法	21
3. 調查実施	22
第2節 調查結果	38
1. 統一觀	39
2. 情勢觀	45
3. 會談觀	51
4. 其他統一과 關聯된 問題에 對한 意見	55
第三章 問題点 및 對策	59
第1節 問題点	61
第2節 對 策	63

第一章 大學의機能斗現實參與

第一章 大学の機能과 現實參與

第 1 節 序

大學生들의 社會現實에 대한 批判이나 一般的인 文化·社會的 改革의 諸形態間의 關係는 現代에 와서 매우 重要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大學生들의 社會에 대한 여러가지 多樣的 獨立的 活動, 즉 現實參與를 促進시키는 여러 條件은 現代社會에서 더욱 成熟되어지며 複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一般的인 趨勢와 더불어 韓國의 大學生은 國土分斷 四半世紀만에 民族의 念願인 南北統一을 위한 對話가 進行되고 있다는 韓國의 特殊狀況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에서 韓國의 知識人, 특히 머지않은 將來에 國家社會의 指導者로 成長할 大學生들의 對話에 대한 反應은 統一成就에 매우 重要的 役割을 할 것이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價值觀 如何에 따라 이에 대한 態度는 여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같은 現狀의 結果는 이들 大學生의 自身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社會에서 차지하는 比重이란 莫重한 것으로 國民全體에 미치는 影響이란 實로 至大한 것이다.

後進社會 일수록 知識層이 社會에 미치는 影響의 比重은 높은 것으로서, 이 知識層 중에서도 특히 大學生層은 하나의 組織된 集團으로서 이들의 影響이 國家社會의 將來에 얼마나 큰 役割을 한다는 것은 다시 論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들이 속해 있는 大學의 本質은 무엇이며, 그 機能, 國家社會와의 關係 등을 綜合 分析하여 將來의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知性人으로 成長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大学生들은 共產主義가 무엇인가를 實際로 接해보지 못했으며, 또한 過去의 여러 學生運動을 돌이켜 보아 國家運命에 決定的인 作用을 한 歷史的 傳統을 가지고 있다는 點등에서도, 비단 南北對話에 관련하여서 만이 아니라 國家發展을 위하여서도 이들 大學社會에 對한 意味와 깊은 理解아래 보다 巨視的인 次元에서 이들 大學生들의 善導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大學의 理念과 社會的 機能

大學은 어느 國家에서나 그 國家, 그 社會의 모든 文化 形成을 가장 먼저 음트게 할 뿐더러 一般的으로 普遍化 시키는데 첫번째의 斥候로서 모든 情報과 實態를 把握하고 나아가 그것을 自己 國家의 것으로 土着化 시키는 役割도 亦是 大學이 맡아 왔다는 것을 歷史的인 事實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으로, 大學없이는 國家의 未來도 없는 것으로 大學의 使命은 大學生의 使命인 것이다.

大學의 存在 價値는 大學이 追求하려는 目的과 이를 위하여 遂行하려는 機能에 對한 基本哲學이 처음부터 바르게 定立되고, 그 目的의 成就와 機能의 遂行을 위해서 大學이 效率的으로 努力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大學은 첫째, 高度의 知的文化를 繼承 傳達하며 創造 發展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存立한다. 大學은 統一 國家로 形成 以前으로부터 그 起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民族과 階級을 超越하여 學問을 研究하는 *studium Generale*였으며 象牙塔으로 象徵되는 大學의 傳統的 基本精神은 現代의 大學에 있어서도 繼承되고 있다.

大學이 이와같은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遂行할 機能이 바로 教育機能과 研究機能인 것이다. 文化의 繼承을 위해서는 教育機能이, 그리고 文化의 創造를 위해서는 研究機能이 必要하며 이 兩者는 密接한 相互補完關係에 있다. 특히 研究機能은 大學에서 배우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미 大學으로서의 뜻을 喪失하고 또 大學으로서의 資格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로, 大學은 國家社會의 指導的 人材 養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高等教育 機關이다.

國家社會의 機能이 高度로 分化되고 專門化되어 發展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大學은 깊이 研究된 學問的 土台위에서 高度의 知的 訓練을 쌓은 所謂 高級人力을 養成하여 國家社會에 供給하는 同時에 그들의 市民的 教養을 높이고 指導的 人格을 陶冶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는데 大學이 担当하는 主要機能은 教育機能과 學生指導 機能이다.

세째로, 現代의 大學은 앞에서 말한 目的들 外에 時代的 變遷에 따라 또 하나의 새로운 目的을 갖기 始作했으며 그것은 곧 現實社會의 改造를 위한 보다 直接的인 關心과 參與로서 奉仕機能이다.

勿論 앞서 말한 文化의 繼承과 創造 및 指導者 養成의 目的도 窮極的으로는 社會의 發展과 改造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過去의 大學이 未來의 指導的 役軍을 養成하는데 力點을 둔데 比하여 現代의 大學은 보다 直接的으로 오늘의 現實을 改造하는데 積極的으로 關心을 나타내기 始作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大學을 象牙塔이라고 했다. 이는 一般社會와 直接

關係를 맺지 않고 사는 순수한 教育機關이고 研究機關이므로 俗된 現實社會와는 關係가 없다는 意味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결코 大學이 從來의 意味의 象牙塔만은 아닌 것으로, 現實社會를 냉정하게 研究하고 直接 關여하여 같이 發展시키는 奉仕를 한다는 것은 이미 배운 知識이나 技術을 現實社會에 適用해 보는 實習과 그것을 통해 問題를 現實社會에서 찾는 것으로, 이른바 學究的인 活動을 통해서 奉仕하고 새로운 問題 發展에 從事한다는 것이야말로 大學이 大學다 와지는데 必要不可缺한 活動과 機能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大學은 象牙塔이면서 事實에 있어서는 象牙塔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一般的으로 大學이 位置한 地域社會, 그리고 나아가서는 國家의 問題 解決과 福祉 增進에 直接 關與하고 奉仕해 줄 것을 現代社會가 切實하게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 改造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現代의 大學에서 強調되고 있는 機能은 研究機能과 奉仕機能이다. 여기서 強調되는 研究는 現實社會 不合理的 改造와 發展을 위한 當面 課題의 解決에 直接的으로 도움이 되는 研究이며, 그와같은 研究를 통한 現實 參與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大學이 真理를 探究하고 科學的 知識과 技術을 研究한다는 것은 이미 되어진 「레디·메이드」아니면 「세컨드·핸드」로 남이 해놓은 것을 整理하고 모아놓고, 綜合分析하는 인포메이션의 콜렉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그 使命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銳敏한 感覺을 가지고 앞을 보다 넓고 깊게 내다볼 수 있는 叡智와 創造와 探索의 感覺을 訓練하는 곳이어야 하며, 情熱과 용기와 確固한 信念을 가질 수 있는 開拓精神과 未知의

세계에 맞서 나갈 수 있는 모험심이 배양되어야 하는 곳으로서 直感力과 靈感力, 洞察力이 연마되어지고 訓練되어 져야만 大學의 使命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社會一部에서는 大學을 象牙塔이라고만 생각하는 層이 있다. 象牙塔이 좋은 뜻에 있어서 理解될 수 있는 大學社會에 對한 別名이기는 하지만 眞正으로 大學이 大學으로서의 役割과 機能을 다하려면 問題의 對象을 發見한다는 觀點에서 歷史와 歷史的 現實인 지금 이곳에 있어서의 現實社會와 自然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事實로서 이른바 象牙塔이라는 美名아래 現實을 도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敎育하고 研究하는 問題를 發見해 내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이 歷史속에서, 지금 이 時代에 있어서의 現實속에서, 그리고 自然속에서 찾게 마련이다.

이것이 嚴然한 事實이라면 人文科學을 하던, 社會科學을 하던, 自然科學을 하던 나아가서는 藝術을 工夫하던 간에, 즉 무엇을 敎育하고 무엇을 研究하던 素材는 거기에서 찾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든 大學人이 大學社會를 歷史속의 大學, 現實社會속의 大學社會가 되게 하기 위하여는 歷史와 現實社會와 積極的인 意味에서의 關係를 맺어야 할 것임에도 결코 그렇지 못하고 象牙塔이라는 美名下에 小極的인 姿勢를 취하고 있는 面이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現實인 것이다.

反面에 現代 大學生들의 思考는 各者 個人의 家庭에서나 自己들의 學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關心을 갖고 參與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國

가가 아닌 만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까지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자신은 그 문제에 어떻게 参与해야겠다는 식의 態度와 姿勢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精神的, 文化的 世界는 文字 그대로 넓어졌고 擴張되어 「유니버살」하게 되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過去에는 大學에 들어와서 人格을 도야하거나 知識을 배우거나 技術과 能力을 기른다는 것은 앞으로 自己自身の 出世를 위한 人格과 知識과 技術과 能力 練磨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 새로이 생겨나는 새 知識階級은 自己自身을 위한 利己主義의 출세가 아닌 것으로서 아무리 自己에서 物質적으로 地位나 權力으로 좋은 條件이 부여되어도 그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道具나 手段의 役割은 할 수가 없다는 思考아래 他人의 不幸으로서 自己의 幸福에 「프리스」를 求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남이 不幸하면 自己도 幸福할 수 없다는데서 비록 어려우나 自己의 自由로운 생각과 決定에 따라 自己로서 어떤 삶의 意味를 남과 같고 또는 이 世界와 같이 自然까지 包含해서 다같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들의 價值는 變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大學도 亦是 아무리 「유니버살」한 真理를 探究하고 아카데미한 科學的 研究를 한다 하여도 一定한 民族의 感覺과 民族意識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大學은 이제 얼마만큼 많은 學問의 真理를 探究하고 發見하는데 그 目的과 使命이 있기 以前에 얼마만큼 그 國家와 民族의 將來의 運命에 對해 銳敏하게 予知하며 感知할 수 있는냐의 予感的인 訓練이 잘 되었느냐가 現代 大學의 重要한 課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大学の 根本的인 機能은 前述한 바와 같이 教育과 研究과 奉仕에 있는 것으로서 大學에서 배우고 研究한 知識을 現實에 活用하여 國家發展과 社會奉仕에 이바지 하여야 비로서 大學이 大學으로서의 使命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勿論 大學은 知的 觀點에서는 文化圈을 超越한 諸 學問의 集結體이지만, 學問을 媒介로 한 教授와 學生들이 하나의 共同生活을 이루는 곳으로 國家社會의 一部分을 構成하는 社會的 機構이므로 大學體制는 그것의 基盤인 國家社會와 分離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와같이 大學은 하나의 國家內에 存在하는 小社會이기 때문에 國家라는 큰 社會의 制約하에 놓여 있는 部分集團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수 社會集團(大學)에 所屬되어 있는 學生層이 大學生이러니와 이들 大學生은 넓은 意味에 있어서 한 나라의 國民 主權者이면서 同時에 大學生이라는 특수한 社會人인 것이다.

이들이 속해 있는 大學社會는 우선은 現實國家 社會속에 들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고유한 領域의 순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社會속의 大學은 知識人들을 만들기 위하여 있으며, 그 知識人들은 社會가 同時에 그들의 最終的 批判의 무대일 것을 希求하며, 이러한 意味는 大學을 育成시킬 人的 資源으로서의 大學生에 대한 未來的 理念을 뜻하는 것으로서 大學生이란 大學精神의 주축일 뿐 아니라 現實社會에 대한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이다.

大學生은 새로운 知性과 그 體系를 스스로 찾기를 갈망하여 大學社會의 一員이 되었고, 그것을 滿足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結局 意味가 喪失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뚜렷한 理想을 가지고 國家와 民族의 앞날을

생각하는 意慾的인 知性人, 理性人을 社會에 배출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서 國家는 根本的인 價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機能社會이다.

社會의 本質을 究明해 볼때 넓은 意味의 基礎社會와 區別되는 機能社會가 있다.

最近의 社會的 發展으로 基礎社會안에는 漸次 機能社會가 增加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무수한 機能社會가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서 國家는 根本的인 價値를 所有한 하나의 機能社會이다. 大學도 社會안에 存在하고 있는 組織體의 하나로서 機能社會的 役割을 하는 것으로서, 國家란 거대한 社會的 機能의 充足을 위하여서는 大學은 大學으로서의 機能을 最大한 發揮해야 한다.

反面에 社會도 亦是 國家發展을 위하여 大學에 對하여 좋은 環境을 保障하고 充分한 研究 분위기를 造成하여 줄 뿐더러 眞正 大學의 意味를 理解하여 그들로 하여금 學究에 열중토록 할 義務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大學은 社會의 끊임없는 變化와 社會의 要求에 따라 앞장서서 새로운 創造에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學生들은 주어진 環境속에서 充分한 知識을 練磨하여 끊임없는 自己 開發에 主力할 뿐더러 國家와 社會가 要求하는 知性人이 될 것이다.

第 3 節 大學生의 現實參與

大學은 두말할 必要도 없이 學理를 研究하는 殿堂이고 그 社會에 속해 있는 大學生은 修學에 全念해야 되겠지만, 國家와 社會問題에서 초연하는 것은 아니다. 過去 한때는 現實도피적 象牙塔主義를 大學의 使命으로 誤解하고 現實의 諸 社會問題에는 無關心한

것이 大學이 취하여야 될 本然의 姿勢인 것처럼 生覺한 때도 없지는 않았으나, 學問의 實効性과 科學의 實用性을 強調하는 現代社會는 大學의 現實參與를 切實히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問을 위한 學問은 舊時代의 遺物로 되고 있으며, 國家의 政治, 外交, 軍事, 經濟, 社會政策等 모두가 大學의 直接的 研究 對象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政府의 政策을 自由로 이 分析하고 批判하는 것이 大學의 피할 수 없는 義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大學은 社會가 現實改革과 社會의 進歩를 念願하면 할수록 냉철한 批判力과 예리한 分析 能力을 지녀야 할 것이다.

韓國 學生運動의 歷史는 3.1 運動, 光州學生事件, 6.10 만세 등 20世紀初의 쓰라린 國家運命과 直結되는 鬪爭의 연속이었으며 自由를 박탈당한 民族의 울분의 總和로서 8.15 解放 뒤에는 反共反託鬪爭의 선봉적 役割을 다했다.

이처럼 韓國學生運動의 方向은 西歐文明의 수입과 政治 經濟의 不安定으로 漸次 執權層에 對한 反抗으로 번져 4.19와 같은 學生革命이 成功하면서 大學生은 엘리트 意識이 實質적으로 強化되었을뿐 아니라 모든 分野에 直接 參與함으로써 既成世代에 못지 않는 추진체가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오늘날까지 이들은 줄곧 社會的 變革의 기수로서 날카로운 現實參與를 외쳐왔다.

이것은 社會적으로 많은 問題를 던졌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우리 大學生들의 理想主義的 傳統을 남겨 놓았다.

大學生들의 現實參與는 두가지 觀點에서 論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즉 社會的인 面과 政治的인 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社會的인 面에서는 農村啓蒙 Work Camp를 中心으로한 여러 種類의 社會奉仕活動, 醫大生들의 無醫村 診療등의 奉仕活動이 있고

健全한 國民再健運動에 앞장서는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 大學生의 現實參與의 問題點은 社會的인 面의 것이 아니라 보다 政治的인 次元의 現實參與인 것이다.

大學生들이 現實政治에 參與하려고 하는 것은 近來에 이르러 世界的인 現狀이 되었다. 60年代에 나타난 「스튜던트 파워」는 世界 各 大學의 深刻한 問題點이 되고 있으며 여러 樣相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學生 勢力에 의한 社會的 混雜은 政治, 經濟, 社會에 큰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本來的 使命이 教育, 研究, 奉仕에서 우러러 나온 社會改造, 國家에 對한 서비스, 國家에 對한 協力이기 때문에 大學生의 現實參與는 모순의 關係가 아니라 正當性으로서 國家政策에 反映되어져야 할 것이나 國家가 너무나 그것에 對한 受用的 態勢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現實參與가 漸次 行動的으로 되고 따라서 複雜한 事態까지 發展하게 되는 것으로, 그 一次的 責任은 國家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政治的 活動은 그 自体가 目的이기 보다는 手段으로서의 意義가 훨씬 큰 것이다. 따라서 學生들의 政治的인 社會參與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빚어낸 社會的 結果를 考慮함이 없이 그 是非를 論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들의 社會參與의 是非를 一物적으로 斷定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方式으로 參與했느냐에 따라서 個別的으로 評價되어야 할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現代 社會의 知性人으로서의 重要한 成員이 되고 있는 大學生들의 思考는 社會的 이슈나 政治에 對해 關心 내지 意思表示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으로 차 있을 뿐더러 그들은 人間으로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낡은 權威에 도전하며 合意에 의한 意思의 규합을 求하고 國民이 찬성하는 일은 그대로 制度속에 反映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이들 大學生들은 어느정도 理想主義者들이기는 하지만 自己完結的 絶對的 社会 모델을 設定해 놓고 이와 遊離된 現實의 改革을 要求하는 過大 理想主義者의 集團은 아닌 것으로 이들이 現實社会에 對한 호소는 既成의 安定된 社会体制가 빚어내고 있는 幸福한 소리가 아니라 타락한 現實의 修正이라고 一次的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個人的인 不平과 不滿이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 소박한 正義感과 結合되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不平과 不滿의 出發点이던 個人的 理解 關心은 意識의 後面으로 물러서게 되며, 學生들은 그들의 反抗的 意識이 大義와 名分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즉 個人的 不滿을 義憤의 形態로 풀을 바꿈으로써 그들의 反抗的 意識을 더욱 正当化 하고도 있는 것이다.

反面에 위와 같은 學生들의 現實參與의 一般的 思考에 對하여 既成世代들은 政治와 經濟를 위시한 國家的인 여러 問題는 既成世代에 맡기고 學生들은 그들의 本分인 修學의 길에 全念하면 된다는 것이 그들 大部分의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學生들의 社会參與가 不安한 國家에 있어서 一般的 現狀이라면, 學生의 社会參與라는 現實에 對하여 責任을 져야 할 사람은 우선 누구보다도 既成世代의 指導層이라는 結論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學生의 現實參與의 主要原因이 된 不合理的 現實에 對한 責任을 묻지 않고 그러한 現實이 自然的으로 불러 일으킨 그들의 行動에 對해서만 責任을 묻는 것은 公正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같이 現實의 不合理的은 불문에 붙이고 젊은 學生들에게만 責任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二重의 過誤를 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大學밖의 社會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不正腐敗에는 모르는척 눈을 슬그머니 감아치우고, 그리고 共產主義에 對해서 만은 불타는 敵愾心을 가져줄 것을 期待한다면 그것은 共產主義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가를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學生을 우롱하고 기만하려는 行爲일 것이다.

共產主義와 對決에서 勝利하려면, 그리고 學生들과 모든 知識人들이 共產主義와 싸우는 대열에 기꺼이 參加하기를 원한다면, 學生들과 知識人들에게 共產主義와 그 모든 歪流의 맹점과 약점을 일깨워주고 個人의 自由와 尊嚴을 지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무엇보다도 뿌리깊게 심어 주어야 하며, 個人의 自由와 尊嚴을 破壞하는 國內외의 모든 勢力들을 共產主義를 미워하듯 미워하는 必要性을 強調하며, 나아가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主主義의 原則에 도전하는 모든 思考와 勢力에 대한 증오감을 슬기롭게 表現하는 方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勿論 象牙塔속의 젊은 知性들이 그들의 意思를 現實社會에 傳達하고, 나아가 現實에 參與하여 그들의 意思대로 政策을 轉換시키려는 外向적인 學生運動이 多少 과격한 手段으로 表現되어 온 것도 一面 否認할 수는 없으나, 大學生들의 現實參與의 옳고 그름을 論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主觀을 세우고 자기안에 全念

할 수 있도록 自主性和 自立性, 主体性만 길러 준다면 그들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그릇된 集團行為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大学生들에게 強力한 主体意識을 가지고 모든 것을 行動化할 수 있도록 그들의 價值觀의 밑바탕을 길러주는 것이 더 効果的일 것이며 現在로서 가장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한편 이들의 現實參與를 變化라는 事態에 對備하여 方向性을 提出함으로써 合理的 代案을 創出하게 하며 分析的 作業을 가함으로써 時代에 對處할 수 있는, 뒷날의 民族的 榮光과 繁榮을 위한 創造性을 發揮할 수 있는 方向으로 善導되어야 할 것이다.



第二章 大學生的統一安保觀分析

THE UNIVERSITY OF CHICAGO

第二章 大學生的 統一安保觀分析

第 1 節 調 查 方 法

1. 調查의 目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大學生을 思想的 脆弱勢力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여기서 말하는 思想的 脆弱性이라는 뜻은 大學生이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的인 思想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統一觀이나 安保觀에 있어서의 不健全性을 뜻할 것이다. 大學生을 一般的으로 思想的 脆弱勢力으로 보는 것은 두개의 先入觀이 作用하기 때문이듯 하다.

하나는 大學生이 6.25戰爭을 經驗하지 못하고 그것을 觀念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先入觀과 다른 하나는 青年에게는 拒否心理 (反抗性向)가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따라서 大學生을 思想的으로 脆弱한 階層으로 보는 이러한 態度는 어떤 科學的 바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大學生의 意識을 調查한 結果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大學生에 대한 判斷이 科學性을 지니지 못하고 客觀性을 갖지 못하고 現實性을 欠如하고 있으면서 그들에 대한 善導策을 세운다는 것은 발과 눈인지를 모르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大部分의 경우는 바로 이같은 形便이었다.

그러므로 大學生을 어떻게 지도하고 教育할 것인가를 위한 基礎的인 判斷基準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意見調查를 先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大學生들이 과연 어떤 政治的 意識을 하고 있는가? 특히 南北

對話와 관련하여 精神的 危險性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런 問題에 대한 解答을 얻는다는 것은 곧 大學生에 대한 政治教育의 成敗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뜻에서 南北對話에 直接, 間接으로 관련되는 統一觀, 情勢觀, 會談觀, 安保觀들을 調查하였던 것이다.

이들 問題들에 대한 大學生의 意見에서 무엇이 問題点이고 그 問題点을 解消할 수 있는 方案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導出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調查方法

本 調查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가지고 實施되었다.

- (1) 統一問題에 관한 意見
- (2) 統一과 相關된 國際情勢觀
- (3) 北韓觀
- (4) 調節委 및 赤十字會談觀
- (5) 安保觀
- (6) 南北交流觀

표 1 - 1 남북대화에 관한 학생의견조사표

1973. 6.

1. 귀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 1) 너무 지지부진하다.
 - 2) 너무 빨리 진전되어 간다.
 - 3) 적절하다.
 - 4) 모르겠다.
2.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성공시키려면 무엇을 먼저해야 된다고 봅니까.
 - 1) 먼저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 2) 서로 신뢰의 바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3)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등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
 - 4) 아무래도 상관없다.
3. 남북적십자회담의 실질토의에 들어가려는 단계에서 북한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등의 폐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를 어떻게 봅니까?
 - 1) 적십자회담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 2) 원활한 적십자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 3) 회담을 오래 끌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다.
 - 4) 기 타
 - 5) 모르겠다.
4. 귀하는 그동안의 남북대화과정을 보고 어느쪽이 더 성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1) 양쪽이 모두 성의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2) 양쪽이 모두 무성의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3) 우리쪽이 더 성의 있다.
 - 4) 북쪽이 더 성의 있다.
 - 5) 모르겠다.
5. 귀하는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 1) 생사를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다.
 - 2) 서신교류와 면회까지는 실현시킬 것이다.
 - 3) 상호방문까지는 실현시킬것이다.
 - 4) 가족의 재결합까지 실현시킬것이다.
 - 5) 회담자체가 실패할 것이다.
6. 귀하는 현정세로 보아 통일이 언제쯤 될것으로 보십니까?
- 1) 5년이내 2) 10이내 3) 20년 이내
 - 4) 30년이내 5) 30년이상
 - 6) 통일되리라고 보지만 언제될지는 모르겠다.
 - 7) 영원히 불가능하다.
7. 귀하는 평양과 북한의 풍경을 보고 들은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보고 듣지도 못했다.
 - 2) 주민의 모습이 생기가 없는것 같았다.
 - 3) 판에 박은듯한 모습이였다.
 - 4) 짜임새 있는 모습이였다.
 - 5)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8. 귀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미군)이 철수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철수해야 한다.
 - 2) 그대로 있어도 좋고 철수해도 좋다.
 - 3) 당분간 철수하면 안된다.
 - 4) 통일이 될때까지 철수하면 안된다.
 - 5) 모르겠다.
9. 귀하는 지금 북한의 무력침략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 1) 무장공비 침투만은 있을 것이다.
 - 2) 완전히 없을 것이다.
 - 3)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 4) 전면 남침할 위험이 있다.
 - 5) 모르겠다.
10. 북한의 무력침략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일에 가장 치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우리의 총력안보태세 강화
 - 2) 북한과의 접촉계속
 - 3)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
 - 4) 남북간에 평화 협정체결
 - 5) 기 타
 - 6) 모르겠다.
11. 귀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 좋다고 보니까?
- 1) 인도교류→문화, 경제교류→정치통합
 - 2) 인도, 문화, 경제교류→정치통합
 - 3) 정치문제해결→인도, 문화, 경제교류
 - 4) 문화, 경제교류→인도교류→정치통합
 - 5) 전분야의 일시적해결

표 1-2 국토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1972. 9.

1-2권 일련번호	3-4매 일련번호	(5) 연 령	(6) 교육수준	(7) 시·군	(8) 직 업		조사자명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1) 무학 2) 국민학교 3) 중·고등학교 4) 대학이상	1 도시 2 농촌	0) 농·수산업 1) 광공업영 2) 상업 3) 회사원 4) 공무원 5) 교원	6) 서비스업 7) 점포종사 원(날품) 8) 학생 9) 무직 x) 기타	

(9) 귀하는 해방후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월남한 분입니까?

- 1)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월남했다 (문 10으로 같것)
- 2) 남한에 계속 살아왔고 이산가족이 없다.
- 3) 남한에 계속 살았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북한에 가 있다
(문 10으로 같것)

(10)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어떤 관계의 사람입니까?

- 1) 부모, 장인, 장모, 처, 자녀
- 2)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 3)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 4) 사촌형제 (친사촌, 내외종, 이종)
- 5) 8촌이내의 친척

(11) 이산 가족 찾기운동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이 우리측 제의로

-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들어본일도 없다.
- 2) 꼭 성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잘못된 일이다.
- 4)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 5) 모르겠다.

(12) 귀하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측의

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1)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 2) 북한측이 선전에만 열중하는것 같았다.
- 3) 북한측 선전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 4) 북한측도 성의로 회담을 이끌어 가려 했다.
- 5) 별다른 느낌이 없다.

(13) 귀하는 남북적십자 본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까?

- 1) 생사를 확인하는데 그칠것이다.
- 2) 서신교류와 면회까지는 실현시킬 것이다.
- 3) 상호 방문까지는 실현시킬 것이다.
- 4) 가족의 재결합까지 실현시킬 것이다.
- 5) 회담자체가 실패할 것이다.
- 6) 모르겠다.

(14) 남북적십자 회담의 결과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주소를

알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당사항이 없다.
- 2) 먼저 편지를 내겠다.
- 3) 편지가 오면 받아 보겠지만 답장은 안하겠다.
- 4) 편지가 오면 답장을 하겠다.
- 5) 아직 잘 모르겠다.

(15) 남북의 가족이나 친지가 서로 방문할 수 있게 보장된다면 귀

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당사항이 없다.
- 2) 북한에 가서 만나겠다.

- 3) 찾아오면 만나겠으나 찾아가지는 않겠다.
- 4) 찾아와도 안만나겠다.
- 5) 아직 잘 모르겠다.

(16) 북한 동포를 만났을 경우 그들을 남한에 살도록 설득할 자신 이 있습니까?

- 1)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2) 자신이 있다.
- 3) 자신이 없다.
- 4) 만나봐야 알겠다.

(17) 귀하는 남북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 1) 해야한다.
- 2)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3) 당분간은 안된다.
 - 4) 북한이 무력행사를 포기한 것이 증명될때까지는 안된다.
 - 5) 할 필요없다.
 - 6) 모르겠다.

(18 ~ 20) 만일 남북교류를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가지만 차례로)

- | | |
|---------------------------------------|--------------|
| <input type="checkbox"/> 1) 서신왕래 | 2) 체육교류 |
| <input type="checkbox"/> 3) 가족방문 및 성묘 | 4) 기자 왕래 |
| 5) 경제교류 | 6) 학문 및 예술교류 |
| 7) 정치인 교류 | |

(21) 남북교류가 될때 우리가 가장 경계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두려울것 아무것도 없다.
- 2) 북한이 간첩을 보낼 염려가 있다.

- 3) 북한측 선전에 우리가 속을 염려가 있다.
- 4) 사회적 불안이 생길 염려가 있다.
- 5) 기타 ()
- 6) 모르겠다.

(22) 남북교류가 될때 북한에게 가장 불리하리라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

- 1) 부자유한 생활상이 알려진다.
- 2) 전쟁준비를 한것이 알려진다.
- 3) 북한동포가 남한을 그리워 하게 된다.
- 4)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 정치혼란을 가져온다.
- 5) 기타 ()
- 6) 모르겠다.

(23) 남북간에 문화교류를 하면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까 ?

- 1) 우리가 더 유리하다.
- 2) 북한이 더 유리하다.
- 3) 쌍방이 모두 이롭다.
- 4) 쌍방이 모두 해롭다.
- 5) 모르겠다.

(24) 남북간에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 1)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 2) 북한에 더 유리하다.
- 3)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
- 4) 쌍방에 모두 해롭다.
- 5) 모르겠다.

(25) 지난 7월 4일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단합의 통일원칙을 확
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잘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 1) 들어본 일도 없다.
- 2) 잘된 일이다. (문 26으로 잘것)
- 3) 잘못된 일이다. (문 27로 잘것)
- 4) 모르겠다.

(26) 그러면 귀하는 어떤 점에서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 1)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 2)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 3)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 4) 우리민족의 현명함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 5) 기타 ()

(27) 그러면 귀하는 어떤점에서 잘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 1) 북한의 정치공세에 말려들 염려가 있어서
- 2)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 3) 분단을 고정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 4) 아직은 그런일을 할때가 안됐으므로
 - 5) 기타 ()

(28) 귀하는 7.4 공동성명이 있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 1)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속는일
- 2) 통일이 곧 될 것이라는 기대
- 3) 반공정신의 해이
- 4) 기타 ()

(29 ~ 31) 귀하는 7.4 공동성명이 있는 지금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어떤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례로 세 가지만)

- 1) 경제건설 2) 정치안정 3) 국방력강화
4) 사회정화 5) 국제지위의 향상
6) 정신무장 강화 7) 기타 ()

(32) 지금의 정세로 보아 앞으로 유엔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1) 한국만이 가입 2) 남북한 모두 가입
3) 한국만 초청 참석
4) 남북한 초청 참석
5) 모르겠다.

(33)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1) 아주 많이 갖고 있다.
2) 조금 갖고 있다.
3) 별로 갖고 있지 않다.
4)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34) 귀하는 한국의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꼭 이루어져야 한다.
2) 이대로가 좋다.
3) 아무래도 좋다.

(35) 귀하는 현정세로 보아 통일이 언제쯤 될것으로 보십니까?

-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통일이 되리라고 보지만 언제될지는 모르겠다.
7) 영원히 불가능 하다.

(36) 귀하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책임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 보십니

까?

- 0) 미 국 1) 소 련 2) 미국과 소련
- 3) 중 공 4) 일 본 5) 미·소·일·중공
- 6) 대한민국 7) 북 한 8) 민족전체
- 9) 모르겠다.

(37) 귀하는 통일이 지금까지 안된 책임이 어디에 가장 많다고 보
십니까

- 0) 미 국 1) 소 련 2) 중 공
- 3) 유 엔 4) 미·소·일·중공
- 5) 대한민국 6) 북 한 7) 민족전체
- 8) 기 타 9) 모르겠다.

(38) 귀하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직접 정치회담을 해도 좋
다고 보십니까?

- 1) 해도 좋다. 2)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3) 할 필요가 없다. 4) 당분간은 안된다.
- 5) 모르겠다.

(39 ~ 41) 귀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순서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차례로 번호를 말씀하십시오)

- 1) 인도적 교류 2) 문화경제 교류
- 3) 정치적 교류

(42)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
니까?

- 1) 무력에 의한 통일
- 2) 북한 지역만의 선거
- 3)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 4)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 5) 외부의 감시없는 남북 총선거

- 6) 남북연방제 7) 어떤 방안이든 상관없다.
- 8) 기 타 9) 모르겠다.

(43) 귀하는 통일된 후의 국가가 어떤 것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 1) 자유민주국가 2) 공산국가
- 3) 중립국가
- 4) 자유와 공산의 연립국가
- 5) 모르겠다.

(44) 귀하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까?

- 1) 우리정부 2) 우리국민 3) 우리정부와 국민
- 4) 우리정부와 북한 공산집단
- 5) 남북한 전민족 6) 유엔
- 7) 미·소·일·중공 8) 기 타
- 9) 모르겠다.

(45) 귀하는 통일문제에 관해서 누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1)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 2) 학계와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
- 3) 정당 사회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 4) 전 국민간에서 활발히 논의 되어야 한다.
- 5) 모르겠다.

(46) 귀하는 주민의 일상 생활면에서 볼때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여

어떠하리라고 보십니까?

- 1) 우리국민이 더 잘산다.
- 2) 서로 비슷하다.
- 3) 북한 사람이 더 잘산다.

4) 모르겠다.

(4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듯 하다.
- 2)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듯 하다.
- 3) 소수만 만족하고 있는듯 하다.
- 4) 모르겠다.

(48) 귀하는 북한과 비교하여 우리경제의 어느부문이 가장 앞섰다고 보십니까?

- 1) 중공업부문
- 2) 농업부문
- 3) 경공업부문
- 4) 모두 앞섰다.
- 5) 모두 뒤졌다.
- 6) 모르겠다.

(49) 귀하는 북한 경제의 어느 부문이 우리보다 가장 앞섰다고 보십니까?

- 1) 중공업부문
- 2) 농업부문
- 3) 경공업부문
- 4) 모두 앞섰다.
- 5) 모두 뒤졌다.
- 6) 모르겠다.

(50) 귀하는 북한의 군사력중 어느 부문이 우리보다 가장 앞섰다고 보십니까?

- 1) 육군력
- 2) 해군력
- 3) 공군력
- 4) 예비군력
- 5) 모두 앞섰다.
- 6) 모두 뒤졌다.
- 7) 모르겠다.

(51) 귀하는 현재의 북한 공산집단의 지도체제가 언제쯤 큰 변동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 1) 곧 중대한 변동이 있을것 같다.
- 2) 5년내
- 3) 10년내

4) 20년내

5) 수뇌급이 사망한후 또는 통일이 될때까지 없다.

6) 모르겠다.

(52) 귀하는 평양과 북한의 풍경을 보고 들은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1) 보고 듣지도 못했다.

2) 주민의 모습이 생기가 없는것 같았다.

3) 판에 박은 듯한 모습이였다.

4) 짜임새 있는 모습이였다.

5)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53) 귀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미군)이 철수해도 좋

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철수해야 한다.

2) 그대로 있어도 좋고 철수해도 좋다.

3) 당분간 철수하면 안된다.

4) 통일이 될때까지 철수하면 안된다.

5) 모르겠다.

(54) 최근 미.소.일.중공이 서로 접근하는 일이 한국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것으로 보십니까?

1) 분단상태를 더욱 고정시킬 것이다.

2)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3) 무력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다.

4) 아무 영향도 없다.

5) 모르겠다.

(54) 만약 우리가 소련이나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에 가

장 유리한 영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1) 유리할 것이 없다.
- 2)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침략 위협이 줄어들 것이다.
- 3)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 4) 우리가 통일문제를 주도할 수 있다.
- 5) 우리의 무역이 늘어날 것이다.
- 6) 모르겠다.

(55) 일본이 북한과 교류를 늘이면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 무

엇이라고 보니까?

- 1)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 2) 일본의 우리에게 대한 협력이 줄어들 것이다.
- 3)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를 도울 것이다.
- 4) 우리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입장이 어려워 질 것이다.
- 5) 모르겠다.

(56) 귀하는 7.4공동성명이 나온 지금 북한의 무력침략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 1) 무장공비 침투만은 있을 것이다.
- 2) 완전히 없을 것이다.
- 3)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 4) 전면 남침할 위협이 있다.
- 5) 모르겠다.

(58) 정부가 주장하는 총력안보 태세는 무엇을 뜻한다고 보십니까?

- 1) 군사력 강화에 치중하는 것이다.
- 2) 정신무장에 치중하는 것이다.
- 3)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것이다.
- 4) 정치안정에 치중하는 것이다.
- 5) 모든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다.
- 6) 모르겠다.

(59) 북한의 무력침략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가장 치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1) 우리의 총력안보 태세 강화
- 2) 북한과의 접촉 계속
- 3)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
- 4) 남북간에 평화협정 체결
- 5) 기 타
- 6) 모르겠다.

이들 내용은 表 1 - 1 質問書와 같은 構成과 配列로 이루어졌고 그것과 比較한 72年9월에 調査한 質問紙는 表 1 - 2와 같다.

調査對象은 大学生이지만 1972年 및 71年の 경우는 서울, 釜山, 仁川, 春川, 大田, 淸州, 全州, 光州, 大邱 등 全国 大学生이 對象이었는데 대해서 73年6月(今番)의 調査는 서울의 大学生에 限定된 簡易調査이었다.

調査는 質問紙에 記入하되 調査員의 直接配布 및 回收方式에 따랐다.

3. 調査의 実施

調査員은 71年 및 72年の 경우에는 東国大学校 教授 및 講師, 行政大学院 및 学部学生으로 緣故가 있는 者를 선정했고 그들에 대한 訓練이 4次에 이르렀다. 73年の 경우는 教授 및 安保研究所 研究員들에 의해서 遂行되었다.

調査日은 1971年の 경우는 10月21일부터 10日間에 걸쳐 実施되었고 1972年の 경우는 9月15일부터 30日까지이고 73年の 경우는 6月5일부터 11日까지 実施되었다.

調査된 人員은 71年の 경우는 215名(다른 階層까지 合하면 2,000名)이고 72年の 경우는 303名(全國民調査는 6,000名이었음)이고 73年の 경우는 100名이었다.

4. 各 調査의 方法上 差異

大学生이 時間的 差異 즉 狀況變化에 따라 어떤 意識變化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앞에서와 같은 71年과 72年の 調査와 今番調査와를 比較하는 것이 뜻있는 作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三者間에는 다음과 같은 調査方法上의 差異點이 개재함을 무시할 수는 없다.

첫째로, 數的으로 71年은 今番보다 2倍以上이고 72年은 3倍以上에 이르고 있어서 誤差에서의 差異가 生길 可能性이 있다.

둘째, 71年 및 72年은 全國的인 것이고 今年에는 서울에 限定된 것이기 때문에 地域이 反應에 어떤 作用因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調査方法上的 差異點 때문에 三者間의 比較에 있어서 價值가 감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72年 9月은 7·4 共同聲明直後이고 今番 調査當時는 南北對話가 벽에 부딪치고 있는 狀況이며 71年 10月은 赤十字予備會談이 열리고 있었던 때이므로 時差에 따른 意識變動을 把握하는 것은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第 2 節 調 查 結 果

1. 統一觀

가. 統一에 대한 關心度

「統一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大學生 및 全體國民의 反應은 다음 表와 같은데 73年度에는 이 調査項目이 없었다.

<表 2-1>

統 一 關 心 度

區 分	72 (大學)		72 (全體)		71 (大學)		71 (全體)	
	명	%	명	%	명	%	명	%
많 다		66.3		68.3		74.4		62.1
조금 있 다		26.1		25.8		21.9		27.8
거 의 없 다		6.6		4.7		3.7		8.0
전 혀 없 다		1.0		1.2				1.4

앞의 表 2 - 1 에서와 같이 大部分의 國民은 統一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表示하고 있고 大學生의 경우도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다만 全体國民의 경우는 71年보다 72年에 統一關心度가 높아졌는데 比較해서 大學生의 경우는 오히려 96.3%에서 92.4%로 약간 줄어들고 있다.

나. 統一希求度

統一에 대한 關心과 관련하여 「統一이 꼭 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大部分의 國民과 大學生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今番 調査에서는 이 項目이 없었으므로 大學生의 경우도 72年의 것을 參照할 수 밖에 없다.

<表 2-2>

統一希求度

區 分	72 (大學)		72 (全體)		71 (大學)		71 (全體)	
	名	%	名	%	名	%	名	%
꼭 되어야 한다		87.1		90.1		93.0		91.5
이래도 좋다		7.3		4.5		2.3		2.3
아무래도 좋다		5.6		5.5		1.4		2.8
D.K						1.0		1.3

앞의 表 2 - 2 에서 볼 수 있듯이 統一希求度は 71年보다 大學生의 경우에 있어서나 一般國民의 경우에 있어서나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反對로 分斷希求도와 아무래도 좋다는 意見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反應變化는 南北對話의 進行에 따르는 不安感이 作用하기 때문인듯 하다. 勿論 큰 變化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決定的

意味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統一時期予測

大学生을 비롯한 全國民이 統一에 큰 關心을 表示하고 그것을 強力히 希求하고 있음에 비추어 「期待認識水準」과 「現實認識水準」間的 合致度를 알기 위해서 「現情勢로 보아 언제쯤 統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을 提示하였다.

이 물음에 대해서 過半數가 予測할 수 없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는바 그 內容은 다음 表와 같다.

<表 2-3 >

統一時期予測

區 分	73 (大學)		72(大學)		72(全體)		71(大學)		71(全體)	
	名	%	名	%	名	%	名	%	名	%
5 年 以 內		0		1.3		4.9		2.8		8.5
10 年 以 內		2		11.9		16.3		30.7		28.9
20 年 以 內		10		11.2		10.0		27.9		16.2
30 年 以 內		4		5.9		4.8				
30 年 以 上		4		3.6		3.0		10.7		9.5
統一은 되나 時期모름		56		59.1		57.4		18.6		30.2
永 遠 不 能		24		6.9		3.6		5.6		5.6

앞의 表 2-3에서 나타난 特徵적인 反應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1) 統一을 確信하지만 時期를 予測할 수 없다는 反應이 過半數를 넘으며 每年 增加하고 있다는 點이다. 71年 調査時 大学生의 경우 18.6%이던 것이 72년에는 59.1%, 73년에는 56%로 變하였고 全體의 경우 71年の 30.2%에서 72年の 57.4%로 늘어

나고 있는 것이다.

즉, 對話가 本格化한 72年을 고비로 D.K率이 急增하고 있다.

(2) 統一이 永遠히 不可能하다고 보는 大学生이 매우 많다는 點이다. 특히 今年에 들어와서 그 數가 急增하고 있는 것이다.

즉, 24%의 大学生이 統一不可能論者인바 이 數는 71年의 5.6%나 72年의 6.9%에 比할때 엄청난 變化라고 하겠다. 즉, 4倍內외의 數的 增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結果가 생긴 것은 그동안 進行된 南北對話와 國際情勢가 大学生의 意識에 影響을 주었기 때문인듯 하다. 原因이 어디에 있던 大学生中에서 統一締念論者가 急增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일 이 아닐 수 없다.

(3) 앞의 두가지 事實과 관련되지만 數年內에 統一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大学生이 激減하고 있다는 點이다. 5年內 및 10年內에 統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大学生은 71年의 33.5%에 比해서 不過 2%로 줄었는바 兩者間의 變化比率은 무려 16.7對1이 된다. 그리고 72年의 12.2%에 比해서도 약 6對1이 된다.

즉, 統一이 곧 되리라고 보는 大学生이 每年 急激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現象은 國際情勢와 南北對話등이 影響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겠으나 조급한 統一觀은 갖지 않도록 促求한 政府의 弘報가 過度效果를 얻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다.

라. 統一實現段階觀

對話가 進行되는 동안에 南北間에는 統一을 實現하는 段階 또는 順序에 關하여 뚜렷한 差異가 나타났는바 非政治 優先主義에 基礎를 두는 南의 段階解決論과 政治優先主義와 관련된 北의 一時 解決論이 그것이다. 兩側이 正反對의 方向에서 接近하려는 統一順序 및 接近方法에 대한 大学生의 反應을 알기 위해서 「統一을 어떤

順序로 實現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 表와 같이 集中的 意見을 찾지 못하였다.

<表 2-4 >

統一 實現 順序

區 分	7 3 (大 学)	
	名	%
人道交流 → 文化 · 經濟交流 → 政治統合		48
人道 · 文化 · 經濟交流 → 政治統合		4
政治問題解決 → 人道 · 文化 · 經濟交流		10
文化 · 經濟交流 → 人道交流 → 政治統合		36
全 分野의 一時的 解決		2

앞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은 非政治的인 分野로부터 統一接近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非政治的 交流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反應은 北側이 主張하는 政治優先 또는 一括處理案보다 훨씬 많은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反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對話過程에서 北韓側이 보인 宣傳爲主의 態度와 그동안의 學校 및 社會教育을 통한 學習過程 (Learning Process) 에서 받은 反共教育이 奏効했기 때문인듯 하다.

(2) 어느 特定方案에 대한 支持의 集中化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人道交流 → 文化 · 經濟交流 → 政治統合이라는 接近方法과 文化 · 經濟交流 → 人道交流 → 政治統合이라는 接近方法에 分散的인 反應을 보이

고 있는 것이다. 이런 反應 現象이 나타나게 된 것은 政府의 政策 指導上에 不明確性이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72年까지만 하더라도 人道交流→經濟·文化交流→政治統合이라는 三段階統一論이 公式化되고 있었으나 最近에 이르러 非政治→政治의 二段階論이 公式化 하는듯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大學生의 判斷에 어떤 作用을 하였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마. 統一方案

統一達成方案을 武力에 의한 吸收統一과 聯邦에 의한 對等統一 및 選舉에 의한 不確定的 統一이라는 세가지로 나누어 이에 대한 意見을 물은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73年의 경우는 이 項目이 調查되지 않았으므로 71年과 72年의 調查結果만을 提示하기로 한다.

<表 2-5>

統 一 方 案

区 分	72 (大学)		72 (全体)		71 (大学)		71 (全体)	
	名	%	名	%	名	%	名	%
武 力 統 一		3.0		3.1		7.4		6.7
北 韓 單 選 舉				1.7				1.0
UN 監 視 南 北 總 選		37.3		40.7		36.7		27.0
中 立 國 監 視 南 北 總 選		7.9		9.7		6.5		7.8
外 部 監 視 沒 有 總 選		28.4		24.0				
南 北 聯 邦		11.6		4.6		7.0		37.1
어 떤 方 案 도 無 關		4.9		5.2				
其 他		2.0		1.1		1.4		2.2
D. K		4.9		10		1.4		13.9
南 北 協 商						38.6		

앞의 表에서 몇가지 特徵的인 것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UN監視下의 南北總選舉 및 外部監視 없는 南北總選舉가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어서 選舉(平和的)方法에 대한 支持가 큼을 보이고 있다.

(2) 武力統一論者가 3%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71年度의 7.4%에서 半減됐다. 이것은 戰爭에 의한 어떤 事態變化를 大學生이 願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3) 南北聯邦制에 대한 支持率이 無視할 수 없는 數에 이르고 그것은 71년에 比하여 증대하였으며 또 全體國民의 4.6%에 比하여 越等히 많은 11.6%에 이른다는 點이다.

2. 情勢觀

가. 美軍撤収에 대한 意見

共産側은 駐韓 國聯(美)軍의 撤収를 機會있을 때마다 主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反應을 間接的으로 알아보고 韓半島의 安病情勢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國聯(美)軍이 撤収해도 좋으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2-6>

美軍撤収에 對한 意見

區 分	73(大學)		72(大學)		72(全體)		71(大學)		71(全體)	
	名	%	名	%	名	%	名	%	名	%
撤収해야 한다.		8		5.3		3.9		9.3		8.1
아무래도 좋다.		4		8.9		9.1				
當分間 안된다.		60		49.2		40.0		56.7		41.9
統一時까지 안된다.		28		34.3		42.8		33.0		43.6
D. K				2.3		4.4		0.5		5.2

앞의 表 2 - 6 에서 보면 大学生은 美軍撤収를 바라지 않고 있다.

(1) 過半數가 當分間 撤収해서는 안된다는 意見이고 統一時까지 駐屯을 바라는 意見도 相當히 있다는 點이다.

이런 反應이 나타나게 된 것은 北韓으로부터의 侵略危險性이 아직도 存在한다고 하는 大学生의 潛在認識이 作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그러나 統一時까지 駐屯하기를 바라는 數는 71年의 33% 와 72年의 34.3% 보다는 적지 않은 減少를 하고 그 代身 「當分間」이라는 時限的 條件을 붙인 數가 각각 71年의 56.7% 와 72年의 49.2%에서 60%로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反應은 韓半島에서의 平和가 確實할 때까지 美軍駐屯을 바란다는 것을 뜻하는바 自主國防 또는 民族主体意識을 強調한 政府의 努力이 影響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듯 하다.

나. UN에서의 位置

「앞으로 UN에서의 우리의 位置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大学生의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73年除外)

<表 2-7 >

UN에서의 韓國位置

區 分	比 率	72(大學)		72(全體)		71(大學)		71(全體)	
		名	%	名	%	名	%	名	%
韓國만 加入			8.3		16.0	}	※ 36.3	}	19.3
南北韓 加入			17.8		15.4				
韓國만 招請			11.9		10.1		1.9		4.5
南北韓 招請			42.9		24.8		48.8		33.1
D.K			19.1		33.7		6.0		37.4

※票는 分斷國의 加入

앞의 표에 나타난 몇가지 特徴을 간추려 본다.

(1) 거의 半數에 이르는 大学生이 南北韓의 同時 招請이 있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이 反應은 71年과 72年에 差異가 거의 없다.

(2) 韓國만 招請될 것으로 보는 大学生은 71年의 1.9%에서 11.9%로 急增하였다.

(3) 南韓이 優位를 維持할 것이라는 見解와 南北이 同等한 地位를 가질 것이라는 見解間의 比率은 20.1%對 60.7%라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UN에서 韓國이 北韓에 비하여 絶對的 優位를 維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南北韓住民生活 比較

赤十字 本會談의 進行과 더불어 大学生은 처음으로 共産社会의 実相을 表面上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즉, 觀念의 世界에서의 共産社会가 現實世界의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住民의 日常生活面에서 南北韓의 어디가 더 잘산다고 보느냐」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表 2-8 >

南北韓 住民生活 比較

区 分	72 (大学)		72 (全体)		71 (大学)		71 (全体)	
	名	%	名	%	名	%	名	%
우리가 잘산다.		71.3		79.6		84.7		84.4
서로 비슷		12.2		7.6		4.2		5.1
北韓이 잘산다.		1.7		1.3		3.3		1.2
D.K		10.4		11.4		7.9		14.2

앞의 표에서 몇가지의 特徴을 찾을 수 있다.

(1) 많은 大学生이 우리가 더 잘산다는 意見を 가지고 있으나 71年の 84.7%가 72년에는 71.3%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觀念的 反共教育의 間接的인 反映이기도 하다.

(2) 서로 비슷하다는 意見도 無視할 수 없을 程度인바 특히 71年の 4.2%에서 72년에는 12.2%로 急増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虚像이 実像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北韓社会에 대한 印象

赤十字會談이 있는 후에는 大部分의 大学生이 画面으로 北韓社会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보고 들은 후의 北韓社会에 대한 評價를 알기 위해서 「北韓의 風景을 보고 들은 느낌」을 물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2-9> 北韓社会에 대한 印象

区 分	比 率	73 (大学)		72 (大学)		72 (全体)	
		名	%	名	%	名	%
보고 들지 못했다.			2		0.7		5.9
생기가 없다.			4		19.8		26.8
판에 박은 모습			72		63.7		51.6
짜임새 있는 모습			12		12.5		7.5
별다른 느낌없다.			10		3.3		8.3

앞의 表에 나타난 特徴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이 比較的 中立的인 反應이라고 할 수 있는 「판에 박은 듯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바 이런 反應은 72年の 大学生 反應인 63.7% 보다 약간 上廻하는 72%인 것이다.

(2) 北韓社会에 否定的인 反應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다는 意見은 매우 적어 4%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72年 調査時의 反應인 19.8%보다 거의 5分の1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런 傾向이 나타나게 된 것은 72年의 意見은 條件反射的인 反應이었기 때문인듯 하다.

마. 北韓의 南侵可能性

大学生들의 对北 警戒心を 測定하고 北韓意圖에 대한 理解度を 測定하기 위해서 「現情勢로 보아 北韓의 武力南侵이 없겠느냐」는 물음을 하여 보았는데 南北對話가 순조롭게 進行되고 北韓의 挑発이 거의 中止되고 있었던 72年9月の 調査에 나타난 大学生 意見과는 뚜렷한 差가 나타났다.

<表 2-10> 南 侵 可 能 性

区 分	73 (大学)		72 (大学)		72 (全体)	
	名	%	名	%	名	%
共匪 浸透 같은 継続		32		15.5		15.7
完全히 없을 것		2		3.0		3.9
当分間 없을 것		36		50.8		50.5
全面 南侵 可能		28		17.8		14.4
D.K		2		12.9		15.6

앞의 表 2-10 에 나타난 特徴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全面南侵이나 共匪浸透가 当分間 없을 것으로 보는 大学生 数가 72年의 50.8%에서 36%로 激減하고 있다.

(2) 共匪浸透만은 継続될 것으로 보는 大学生数가 72年의

15.5%에서 32%라는 倍數로 늘어나고 있다.

(3) 全面南侵의 可能性이 있다는 大學生數가 72年의 17.8%에서 73년에는 28%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大學生은 北韓의 戰略이 侵略的이며 따라서 北韓이 對話를 進行시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平和的인 것으로 理解하지 않고 있다. 이런 意識을 갖게된 것은 對話가 進行되는 동안에도 73년에 와서는 繼統的으로 間諜南派와 休戰線上에서의 挑發事故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北韓住民說得自信度

勝共確信度 및 自信度を 스스로 어느만큼 지녔다고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北韓同胞를 南韓에 살도록 說得할 自信이 있느냐」는 물음을 하여 본 結果는 다음 表와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71年과 72年의 調查結果만이다.

<表 2-11> 北韓住民說得自信度

區 分	72 (大學)		72 (全體)		71 (大學)		71 (全體)	
	名	%	名	%	名	%	名	%
說得이 必要없다.		19.5		12.2				
自信있다.		39.3		39.1	56.3		42.2	
自信없다.		5.9		6.6	6.1		9.0	
만나야 안다.		35.3		42.2	34.4		39.9	
D.K					2.3		7.7	

앞의 表 2-11 에서와 같이 自信이 있다는 大學生과 만나야 안다는 大學生의 比率이 비슷하며 說得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람도 相当數에 이르고 있다.

71年과 比較할때 自信이 있다는 數가 56.3%에서 39.3%로 줄었다는 點이 特徴的이다.

3. 會談觀

가. 南北對話의 誠實度

南北對話에서 어느쪽이 더 성의가 있느냐는 問을 한 結果는 다음 表와 같이 우리쪽이 더 誠意있다는 反應이 54%로 過半數이며 雙方이 모두 誠意있다는 學生이 22%에 이르며 北韓이 誠意있다고 보는 學生은 全無했다.

<表2-12> 南北對話의 誠實度

區 分	比 率	73 (大學)	
		名	%
양쪽 모두 誠意있게 進行			22
양쪽 모두 無誠意하게 進行			8
우리쪽이 더 誠意			54
北쪽이 더 誠意			0
모르겠다.			16

나. 南北對話의 進度評價

南北對話가 進行되는 동안 어떤 때와 어떤 階層에서는 너무 빨리 進전된다고 보는 反面에 어떤 階層은 너무 늦게 進전된다고 보는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大學生들에게 「南北對話가 순조롭게 進行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問을 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2-13 >

南北對話의 進度評価

区 分	73 (大学)	
	名	%
너무 부진하다.		72
너무 빨리 진전되어 간다.		8
적절하다.		14
모르겠다.		6

表 2 - 13 에 나타난 大学生 意見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大部分의 学生이 「 너무 부진하다 」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뒤집어 解釋할때 大学生이 南北關係의 새로운 展開에 대해서 조금한 期待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点에서 注目할만하다. 그리고 72年까지의 순조로운 對話進展에 비할때 最近의 進度에 어떤 失望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라고도 하겠다.

(2) 「 適切한 進度 」로 보는 学生도 完全히 無視할 수 없는 14%에 이르고 있지만 빨리 進展되어 간다고 보는 学生은 많지 않다.

다. 赤十字會談展望

赤十字會談의 5個議題中에서 其他 事項을 除外한 4個議題의 實現可能性을 물어 보았다. 時間적으로 第1議題인 生死, 住所確認을 1段階로 面會, 書信交流를 2段階로, 訪問을 3段階로, 再結合을 4段階로 想定할 수 있어서 어느 段階까지 實現시킬 것인가를 물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2-14 >

南北赤十会谈展望

区 分	73 (大学)		72 (大学)		72 (全体)	
	名	%	名	%	名	%
生死確認에 局限		26		19.8		17.7
書信交流, 面会實現		24		30.0		29.0
相互訪問 實現		4		15.5		13.8
再結合 實現				5.9		6.8
会谈失敗		44		14.9		11.5
無応答				13.9		21.3

앞의 表에서 나타난 特徵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1) 生死確認과 書信交流의 段階까지 進展될 것으로 보는 大学生이 많다.

会谈自体가 失敗할 것으로 보는 사람을 除外하면 第1段階와 第2段階까지에 集中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고 第3段階와 第4段階에 대해서는 殆無 또는 全無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第1段階의 경우는 今番調査에 있어 最大의 反應(失敗除外)을 보이고 있는 形便이다.

(2) 会谈自体가 失敗할 것이라고 보는 大学生이 어느 項目에 대한 反應보다도 많아서 44%나 되며 그것은 去年의 14.9%에 비하여 뚜렷한 變化이기도 하다.

(3) 家族의 再結合까지 實現될 것으로 보는 大学生이 全無하다.

이런 結果가 생긴 것은 会谈進行過程에서 보인 여러 隘路点 때 문인듯 하다.

라.北韓赤十字代表의 主張評價

「南北赤十字會談에서 北韓이 反共法과 國家保安保의 폐기를 主張하는 理由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 表와 같이 「赤十字事業을 위해 必要」하다고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大學生이 거의 없고 大部分은 「會談을 지연시키기 위해서」(28%) 또는 赤化統一에 利用하기 위해서(48%)라는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表 2-15>北韓의 反共法 및 保安法 廢棄主張에 대한 意見

區 分	73 (大學)	
	名	%
會談을 赤化統一에 利用		48
赤十字事業의 遂行을 위해 必要		6
會談을 遲延시키기 위한 手段		28
其 他		4
모 르 겠 다		14

바. 調節委員會談의 先決事項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이 最近에 이르러 方法論上의 意見對立으로 인해서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主張된 것에 대한 大學生의 意見을 알기 위해서 「南北調節委의 會談을 進展시키기 위해서 먼저 解決할 問題가 무엇이나」는 물음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反應이 나타났다.

<表 2-16 > 南北調節委員會 會談成功을 위한 先決問題

区 分	73 (大学)	
	名	%
南北間 平和協定締結		4
信賴의 바탕으로 段階的 接近		90
政治・經濟・社会・文化・軍事等 同時解決		4
아무래도 相關없다.		0
無 應 答		2

앞의 表에서 나타난 特徵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1) 段階的 接近方法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側의 主張에 대해서 合當하다고 생각하는 大学生이 絶對多數(90%)이다.

즉, 大学生間에는 解決하기 쉬운 問題 또는 經濟, 文化등의 問題를 先決하고 段階的으로 會談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一般化 되고 있는 것이다.

(2) 北韓側이 내세우는 平和協定締結이나 全分野의 同時解決論에 대해서는 大学生들이 不合理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뚜렷하다.

이 事實이 會談이 進行되는 동안에 생기는 兩側의 對立되는 主張에 대하여 展開하고 있는 政府의 弘報活動이 主要하고 있음을 立証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4. 其他 統一과 관련된 問題에 대한 意見

가. 交流에 대한 意見

南北交流는 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 會談에 의해서 비록 部分的이기는 하지만 實質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全般的인 交流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한 設問을 하였는바 그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表 3-1> 南北 交流 贊 反

區 分 \ 比 率	72 (大 学)		72 (全 体)		71 (大 学)		71 (全 体)	
	名	%	名	%	名	%	名	%
해야 한다.		51.5		47.1		53.0		47.6
하던 안하던 無 関		4.3		6.6		2.3		7.3
当分間 不可		14.2		10.7		27.9		19.9
南侵 拋棄時까지 不可		27.1		29.2		14.9		19.3
不 必 要		2.0		1.6				
D.K		1.0		4.1		1.4		6.1

앞의 表에 나타난 몇가지 特徵을 추려 본다.

(1) 交流를 해야 한다는 意見이 多数인데 이것은 71年과 거의 同率이며 不必要하다는 意見은 2%에 不 過하다.

(2) 慎重論者도 無視할 수 없는 數에 이르는바 時限條件인 当分間 不可하다는 것 (14.2%) 과 狀況條件인 南侵拋棄時까지 不可하다는 것 (27.1%) 을 合하면 條件附加 交流論者가 41.3%나 된다.

나. 平和達成方案

「 韓半島에서 戰爭을 予防하고 平和를 이루기 위해 가장 值重해야 할 일이 무엇이나 」는 물음을 한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表 3-2 >

平和達成方案

区 分	73 (大学)		72 (大学)		72 (全体)	
	名	%	名	%	名	%
우리의 總力安保態勢 強化		72		66.0		60.9
北韓과의 繼續 接觸		6		6.6		8.6
4 大國에 의한 平和保障		10		5.6		5.7
南北間 平和協定締結		10		19.1		17.1
其 他		2		1.0		1.6

앞의 表에서 몇가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1) 大部分의 大学生은 自體의 總力安保態勢의 強化를 平和條件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런 反應은 72年과 거의 같다.

(2) 南北間 平和協定締結이라는 意見은 72年보다 半數로 줄었고 四大大國保障論은 72年보다 약간 늘어나고 있다.



第三章 問題点 및 對策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540 EAST 57TH STREET
CHICAGO, ILL. 60637
TEL: 773-936-3000
WWW.CHICAGO.EDU

第三章 問題点 및 対策

第1節 問題点

以上에서 우리나라 大学生의 社会意識, 政治意識 및 統一安保觀 등의 構造와 그 特徵을 살펴보았거니와 거기서 問題視되어야 할 몇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그러나 大学生의 意識構造中에서도 가장 問題가 될수있는 것은 統一安保觀에 内在될 것이기 때문에 調査結果에서 나타난 問題点을 整理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첫째로 北韓側이 統一 또는 南北關係의 解決方案으로 내세우고 있는 主張들에 대해서 同調적이거나 北韓社会에 好意的인 反應을 보이는 大学生이 完全히 無視할 수 없는 數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런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社会教育 및 学校教育을 통한 政治教育에 어떤 虛点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데에 問題는 더욱 크다고 할것이다.

둘째로 統一問題에서의 期待水準이 現實水準을 훨씬 上廻하고 있다는 점이다. 統一이 꼭 되어야 한다는 希求率이 87.1%인데 그것에 쉽사리 接近하지 못함에 大学生의 大部分인 72%가 對話가 너무 不振하다는 意見을 갖기에 이르렀는바 이것은 期待와 現實間에 거리가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現實水準이 期待水準에 맞지 않을때는 그로 인한 諦念論 또는 對政府攻擊性向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問題는 더욱 複雜하다고 보아야 한다.

세째 앞의것과도 關聯되지만 統一諦念論者가 急增하고 있다는 점이다.

統一이 곧 實現될지도 모른다는 感傷的 民族主義와 조금한 統一

論이 후퇴한 점에서도 幻想이 現實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統一諦念論이 大學生間에 크게 중대하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問題點이 생긴 것은 對話過程에서의 雙方意見의 對立, 國際情勢 등이 작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早急한 期待를 해서는 안된다」는 政府의 社會教育의 影響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南北關係에 대한 悲觀論은 赤十字會談에 대한 反應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赤十字會談自体가 失敗할 것으로 보는 意見이 72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統一問題나 赤十字會談에 대한 이러한 悲觀論 또는 諦念論의 增大的 感受性이 많은 大學生에게 心理的 挫折感 (Frustration) 을 갖게하여 南北關係에서 얻지 못한 것을 對內問題에서 補償하려는 欲求를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는데 問題의 深刻性이 있다고 하겠다.

네째 統一實現段階 (順序) 에 대한 意見의 統一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政府가 종래에 主張한 三段階統一論 (人道→經濟, 文化→政治) 은 對話가 二元的으로 進行되면서 또 對話過程에서 생긴 問題點에 影響되어 國民意思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지 못하다. 즉 三段階統一論自体가 二段階論으로 變質하였거나 또는 人道→經濟, 文化→政治中 經濟, 文化의 先行이 비쳐지기도 했기때문에 大學生에게도 意見의 統一化 (集中化) 가 있을수 없었던것 같다.

이 問題點은 政府의 政策指導가 統合性, 單一性을 가지지 못하므로서 생긴 間接結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첫째의 問題點과도 關聯되는 것이지만 北韓社會에 대한 批判的, 敵對的인 反應이 크게 줄고 好意的인 생각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現象은 어느 面에서 보면 虛像만의 北韓 image가 現實世界에서 實像化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는 그것이 問題點이 될수 없다고도 하겠으나 現實批判性, 感受性, 강한 革新指向性등을 가지는 大學生들에게서 그러한 傾向이 있다는 것은 体制的인 側面에서 그대로 넘길 問題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第 2 節 對 策

가. 安保教育의 現實化

大學生에 대한 安保(思想)教育이 現實的 基盤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安保教育은 많은 경우에 觀念的 教育에만 그치고 있는바 이것에 現實性을 賦與하여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先行되거나 併行되어야 할것이다.

(1) 共產主義에 대한 教育이 理念과 理論批判에 그칠것이 아니라 共產國家의 制度 및 實態分析과 그 批判에 까지 擴大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高等學校教育에서 부터 再調整되어야 할것이며 大學의 경우는 國民倫理科目을 통해서 再整理되어야 할것이다.

(2) 北韓에 대한 教育을 觀念的 方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實像의 올바른 傳達(知北教育)과 評價에 依存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實態를 그대로 알린다고 해서 北韓體制에 대한 憧憬心이나 恐怖心이 急增하리라고는 생각할수 없다.

(3) 担当教授 또는 研究者가 共產圈 또는 北韓에 대한 實像을 教育할수 있는 資料提供이 원할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共產圈에 대한 書籍이 大衆化되도록 積極적인 措置를 취해야 할것이다.

나. 學生에 대한 研究參與機會의 擴大

統一問題, 安保問題, 共産圈 및 北韓에 관한 研究에 學生이 參與할 기회를 주어 批判能力을 기를 必要가 있다.

그러나 學生에 그러한 特殊問題를 研究시키려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措置를 先行 또는 併行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 各大學에 설치된 해당분야 研究所나 그와 비슷한 學科의 教授責任下에 研究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그러한 研究所나 教授責任下에 大學生에게도 該當分野에 대한 資料를 積極적으로 提供하도록 하여야 한다.

(3) 運營의 重點은 그러한 研究所나 教授가 大學生을 指導하는 方式으로 부터 出發하므로써 善導的 機能을 遂行토록 한다.

(4) 運營方式은 씨클을 組織(統一研究会)하도록 하고 研究所 및 教授責任下에 運營되는 이 씨클이 他學生善導의 核心體가 되도록 할 것이다.

다. 講義科目 또는 教科書 改編

健全한 統一觀과 安保觀을 가지게하여 民族的 正統性을 歷史속에서 찾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科目의 設置와 教科書內容의 改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 모든 學科에서 專攻과 關聯된 歷史를 獨立科目으로 設置할 것이다. 例컨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政治科 : 韓國政治史

法學科 : 韓國法制史

經濟科 : 韓國經濟史

機械科 : 韓國機械學史

그러나 類似學科는 統合될수 있다. 이를테면 經濟科, 經營科등은 經濟史를 共通科目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

(2) 社会科学系 学科에서는 共產国政治論 또는 安全保障論과 같은 科目을 設定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国民倫理科目的 教科書를 크게 改編하여 共產国的 現実과 北韓現態에 관한 것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라. 高位実務者の 講演会開催

大学生에 대한 安保(思想)教育은 軍事教練의 学科目時間을 제외하면 一般講義時間에는 거의 實施될 機會가 적으므로 特別講演과 같은 方式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校内教授보다도 高位実務者에 의한 講演이 보다 効果的일 수가 있다. 이 들테면 南北調節委員會의 委員 또는 赤十字會談代表 등의 講演이 그것이다.

